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기독교 세계관적 고찰

최용준(한동대학교)

초 록

본 논문은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기독교 세계관적 고찰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이란 일반적으로 모더니즘에 대한 환상이 깨어진 후 그 대안으로 나타난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모더니즘적 이상을 포기하되 인본주의라는 기본 사상은 포기하지 않은 모더니즘 이후의 세계관이 바로 포스트모더니즘이며 여기에는 문화, 예술, 철학, 역사, 경제, 건축, 소설 및 문학 비평 등에 대한 다양하고 회의적인 해석들이 포함된다. 이 세계관은 일관성보다 더 파편화되고 객관적이 아닌 주관적인 도덕성을 강조하면서 종교적 뿌리와 초월적 특성들을 의도적으로 제거한다. 따라서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은 그동안 소외되어왔고 외면받아온 사람들, 특히 가난하고 억압받는 이들에 대해 특별한 관심이 있다. 이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해 기독교 세계관으로 더 깊이 고찰하되 먼저 이 세계관의 배경과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지 고찰한 후 그 대표적 사상가들을 언급하고 이 세계관의 강점들과 내적인 모순이 될 수 있는 약점들을 각각 비판적으로 살펴본다. 그 후 이 포스트모더니즘의 약점들에 대해 기독교 세계관적 대안은 무엇인지 결론적으로 제시한다.

키워드 : 포스트모더니즘, 거대담론, 해체, 상대주의, 기독교 세계관

I. 서론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이란 일반적으로 모더니즘(modernism)에 대한 환상이 깨어진 후 그 대안으로 나타난 세계관으로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세계관일 것이다. 모더니즘이란 중세 이후 인간의 이성을 중심으로 한 합리주의적 세계관과 이를 바탕으로 한 과학 기술의 놀라운 진보로 미래에 대한 낙관주의적 전망과 함께 자본주의의 발전으로 인간의 자율성(autonomy)과 능력을 무한히 신뢰하던 인본주의적 세계관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모더니즘은 20세기 초반에 들어와 경제공황, 양차 세계대전, 핵폭탄 및 공산주의 혁명 등과 같은 비극적인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더는 설득력이 없어졌다. 인간의 자율성과 진보에 대한 확신이 불안으로 변한 것이다. 그 후에 이 모더니즘적 이상은 포기하되 인본주의라는 기본 사상은 포기하지 않은 세계관으로 모더니즘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포스트모더니즘이다. 여기에는 신학, 철학, 사회, 법, 윤리, 정치, 과학, 경제, 심리, 역사, 건축 및 문학비평 등에 대한 다양하고 회의적인 해석들이 포함된다.¹

이러한 포스트모더니즘은 우선 “내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분명하게 대답할 수 없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나’ 자신이 사회적으로 구조화되었다고 믿기 때문이다. 즉 나에게 영향을 준 언어, 지역, 가족, 교육, 정부 등 다양한 요소들이 지금의 나를 구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세계관은 우리가 모두 하나의 사회적 구조물이라고 주장하며 나아가 서구적 형태의 지식 및 정의의 기원 그리고 서양의 기독교와 계몽주의를 낳은 법 질서는 사실상 백인 남성들에게 기반을 둔 것으로 보며 비판하는 경향도 있다. 나아가 이 포스트모더니즘은 일관성보다는 파편화되고 객관적이 아닌 주관적인 도덕성을 강조하면서 종교적 뿌리와 초월적 특성들은 의도적으로 제거한다. 그리하여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은 그동안 소외되어왔고 외

1) 전광식,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기독교 세계관적 비판”, 『통합연구』 7/2, (1994): 21-29.

면받아온 사람들, 특히 가난하고 억압받은 이들에 대해 특별한 관심이 있다. 가령, 이들은 힘이 없는 여성들 및 성 소수자들을 정의의 이름으로 도와주려고 노력한다.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은 진리와 도덕성에 관한 인지도에서 분명히 나타난다. 1994년 조지 바르나(George Barna)의 조사에 의하면 72%의 미국인들은 “절대적 진리란 없으며 두 사람도 전혀 다른 진리관을 가질 수 있고 둘 다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² 나아가 71%의 미국인들은 “모든 상황에서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절대적인 기준은 없다”라고 응답한다.³ 심지어 이들 중 53%는 자신들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한다.⁴ 이처럼 포스트모더니즘은 21세기의 미국에서 주류적인 세계관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현대의 포스트모더니즘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가령 건축의 예를 든다면 모더니즘의 대표적인 건축물은 독일의 바우하우스(Bauhaus)라고 할 수 있다. 정형화되고 표준화되어 효율성도 높아 매우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건물이다(그림 1).



〈그림 1〉⁵

하지만 이 모더니즘에 대한 비판과 함께 포스트모더니즘적 건축이 등장했다. 그 예로 오스트리아(Austria) 출신의 건축가 프리덴스라이히 훈데르트바서(Friedensreich Hundertwasser)가 설계한 아파트로 독일 다름슈타

2) George Barna, *Virtual America*, (Ventura, CA: Regal, 1994), 83, 283.

3) Barna, *Virtual America*, 85, 230.

4) Barna, *Virtual America*, 83.

5) 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6/6e/Bauhaus_Dessau_2018.jpg

트(Darmstadt)에 있는 발트슈피랄(Die Waldspirale)이 있다. 이 건물은 같은 규격이 거의 하나도 없다(그림 2).



〈그림 2〉⁶⁾

그러나 이 포스트모더니즘은 적지 않은 문제점들이 있는데 가령 파편화된 사고로 인해 모든 것이 상대화되어 가치관의 혼란을 일으키는 점을 들 수 있다. 기독교 세계관으로 포스트모더니즘을 다룬 외국 학자 중에 대표적으로 제임스 사이어(James Sire) 및 제프 마이어스와 데이비드 노에벨(Jeff Myers & David A. Noebel)이 있다. 사이어는 *The Universe Next Door: A Basic World View Catalog*라는 책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을 “사라진 수평선(the vanished horizon)”이라는 부제로 다루고 있으나 그 장단점을 비교하여 기독교 세계관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⁷⁾ 마이어스와 노에벨은 *Understanding the Times: A Survey of Competing Worldviews*에서 현대에 가장 중요한 세계관들을 여섯 가지로 분류하는데 그중 하나가 포스트모더니즘이며 이 세계관이 여러 학문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히 분석하고 있다. 즉 포스트모더니즘은 신학적으로는 무신론이며, 철학적으로는 반실재주의(anti-realism)이고, 윤리학적으로는 문화적 상대주의이며, 생물학에서는 진화론을 주장하고, 심리학적으로

6) 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8/8c/Limmeuble_Waldspirale_%28Darmstadt%29_%28287954667340%29.jpg

7) James Sire, *The Universe Next Door: A Basic World View Catalog* (Downers Grove, IL: Inter Varsity Press, 2009), 214-243. 김현수 역, 『기독교와 현대사상』(서울: IVP, 2007).

로는 사회적으로 구성된 자아를 강조하며, 사회학적으로는 성적 평등을 주장하고, 법학에서는 비판적 법학 이론을 강조하며, 정치학에서는 좌익이고, 경제학에서는 개입주의(interventionism)를 앞세우고, 역사학에서는 역사주의(historicism)를 주장한다.⁸ 한글로 된 문헌 중 주목할 것은 1994년에 출판된 「통합연구」 제7권 2호가 이 세계관을 깊이 다루고 있으며 그 중에도 앞서 언급한 전광식의 논문은 이 세계관을 기독교적 관점에서 분석, 비판하고 있고 신국원은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책에서 이 세계관에 대해 성경적 관점에서 여러모로 평가하고 있다.⁹

이처럼 앞서 여러 기독교학자가 포스트모더니즘을 기독교적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다루었지만 이미 20여 년이 지났으며 지금 이 세계관은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으므로 이 세계관에 대해 본 논문에서는 기독교 세계관으로 더욱 깊이 고찰하되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해 기독교 세계관이 인정할 수 있는 장점들을 먼저 살펴보면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을 살펴본 후 단점들은 무엇인지도 고찰하고 이 단점들에 대해 기독교 세계관은 어떤 대안들을 제시하여 극복할 수 있는지 결론을 맺겠다.

II.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기독교 세계관적 고찰

1. 포스트모더니즘의 내용

포스트모더니즘은 첫째, 진정으로 참된 최고의 실재는 무엇인가에 대해 무신론을 주장한다. 이 점에서 이 세계관은 세속적 인본주의 및 마르크스

8) Jeff Myers & David A. Noebel, *Understanding the Times: A Survey of Competing Worldviews* (Colorado Springs, CO: David C Cook, 2015), 147-172. 본서의 이전 버전이 한국어로 번역, 출판되었다. 류현진, 류현모 역, 『충돌하는 세계관』 (서울: 꿈을 이루는 사람들(DCTY), 2013). 나머지 다섯 가지 세계관은 기독교 세계관, 세속적 인본주의, 마르크스주의, 이슬람 및 뉴에이지이다. 이에 관해서는 www.allaboutworldview.org도 참고.

9) 신국원, 『포스트모더니즘』 (서울: IVP, 1999).

주의와 같다고 할 수 있지만, 신의 존재를 부인하는 동기는 다르다. 즉, 과학적 증거가 없다가보다 신을 믿을 수 없기 때문이다. 포스트모던 사상가들은 실재를 나타내는 언어의 능력에 대한 모든 전통적인 가정들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질문을 던지며 해체(deconstruction)를 요구하고 문학에서도 하나의 텍스트란 일정한 의미만 가진 것이 아니며 독자는 자신의 형이상학적 또는 자민족 중심적 가정들을 적극적으로 제거하면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맥락에서 케빈 밴후저(Kevin Vanhoozer)는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이 신을 믿을 수 없게 되었다고 말하는 니체에게 동의한다고 분석했다.¹⁰ 하지만 자끄 데리다(Jacques Derrida)나 리처드 로티(Richard Rorty) 같은 포스트모던 사상가들은 유신론과 무신론 둘 다 거부하면서 전형적인 포스트모더니즘적 모호함을 드러낸다.¹¹ 그 이유는 이들이 무신론 자체도 실재에 대한 하나의 보편적인 진술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로티는 사제주의(clericalism)같은 제도적 교회는 철저히 반대하면서도 개인적인 종교는 인정한다.¹² 따라서 이것은 종교 다원주의로 나아가 어느 한 종교도 절대적으로 진리라고 할 수 없으므로 서로 관용해야 한다는 것이다.¹³

둘째로, 외부의 실재, 즉 우리를 둘러싼 세계의 본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이 세계관은 실재란 인간의 탐구로 궁극적으로 접근할 수 없으며 지식이란 하나의 사회적 구성물로 진리에 관한 주장은 정치적 권력 높음에 지나지 않고 단어들의 의미도 저자들이 아니라 독자들에게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 즉 실재란 결국 개인이나 사회집단이 만들어 내는 것으로 주장하며 이런 의미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은 반실재주의(anti-realism)라고 말할 수

10) Kevin J. Vanhoozer, ed. *Postmodern Theology*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12.

11) Jacques Derrida, *La Dissémination* (Paris: Seuil, 1972). Richard Rorty & Gianni Vattimo, *The Future of Religion* (New York, NY: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5).

12) Richard Rorty & Gianni Vattimo, *The Future of Religion*, 33.

13) D. A. Carson, "Christian Witness in an Age of Pluralism," in D. A. Carson and John Woodbridge, eds. *God and Culture: Essays in Honor of Carl F.H. Henry* (Grand Rapids, MI: Eerdmans, 1993).

있고 보편적 진리도 부정한다. 다시 말해 절대 진리나 지식의 기초에 대해 의심하므로 결국 실재를 정의하는 전체적인 관점인 모든 종류의 거대담론들(meta-narratives)을 거부한다.¹⁴ 신의 존재 여부,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나아가 기적들에 관한 종교적인 주장도 어떤 객관적인 기준보다 하나의 기호나 선호로 간주한다.¹⁵ 결국, 우리가 선호하든 하지 않든 간에 실재란 단지 존재하는 것(reality is what it is)이라고 보는 것이다.

셋째, 인간은 무엇인가에 대해 포스트모더니즘은 인간의 합리성보다는 비합리성에 더 초점을 맞춘다. 근대사회는 합리적 사고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후근대사회의 포스트모던 사상가들은 인간의 욕망, 자극 그리고 느낌에 더 관심을 가지면서 비합리주의를 추구한다. 나아가 일반화된 해석을 거부하고 해석의 다원성을 주장하며 개개인의 특별한 개성에 더 초점을 맞춘다. 명확성보다는 모호성, 동질성보다는 이질성, 통일성보다는 다양성을 더 추구한다. 또한, 포스트모더니즘은 인본주의이기는 하지만 인간중심주의에서도 벗어나려고 한다. 근대사회는 인간 중심이었지만 포스트모더니즘은 자연의 권리도 강조하며 자연을 단지 연구 및 발전의 대상으로만 보는 것을 비판한다. 또한, 인간의 마음 또는 영혼에 대해서도 영혼과 육체가 하나 된 인격체라는 전통적인 관점을 거부하면서 사회문화적으로 구성된 것으로 본다.¹⁶

넷째, 인간이 지식을 가질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도 이 세계관은 매우 비판적인데 가령 과학에서도 우연과 비연속성을 더 강조한다. 정치에서도 근대인들은 정치가 매우 합리적이며 역사는 항상 진보한다고 생각하지만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은 정치란 욕망이 잠재적으로 구성된 것으로 보므로 비

14) Jean F. Lyotard, *La Condition postmoderne: Rapport sur le savoir* (MINUIT; Collection Critique, 1979). *The Postmodern Condition: A Report on Knowledge* (Minneapolis, M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84). 이정완 역, 『포스트모던의 조건: 지식의 보고서』 (서울: 민음사, 2018).

15) Walter T. Anderson, *Reality Isn't What It Used to Be: Theatrical Politics, Ready-to-Wear Religion, Global Myths, Primitive Chic, and Other Wonders of the Postmodern World* (San Francisco, CA: Harper & Row, 1990).

16) Anderson, *Reality Isn't What It Used to Be*, 3. Glenn Ward, *Teach Yourself Postmodernism* (Chicago, IL: McGraw-Hill, 2003), 118.

정치화 및 비역사화를 주장한다. 다시 말해 지식은 파편화되고 하나의 전체적인 체계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로티는 이렇게 요약했다. “우리는 이제 진리의 정합성 이론(the correspondence theory of truth)을 포기해야 하며 도덕적이고 과학적인 신념을 더 숭고한 인간의 행복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들로 보기 시작해야 한다.”¹⁷ 따라서 절대적 진리(Truth)는 없으며 단지 개인 또는 한 사회의 소그룹에만 적용되는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진리들(truths)만 인정한다. 즉, 나에게서는 진리가 될 수 있으나 타인에게는 아닐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학철학자 폴 파이어아벤트(Paul Feyerabend)도 한 문화에서는 과학이라고 불리지만 다른 문화권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음을 주장하면서 모든 환경과 인간 발전의 단계에서 유효한 유일한 원리는 “무엇이든 가능하다(anything goes)”라는 것이라고 강조한다.¹⁸ 또한 마이클 폴라니(Michael Polanyi) 및 토마스 쿤(Thomas Kuhn)의 영향을 받아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은 과학이란 단지 사실에 관해 연구하여 발전하는 학문이 아니며 사실이라는 것도 과학자의 세계관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과학의 객관성과 중립성에 의문을 제기한다.¹⁹

다섯째, 윤리 또한 포스트모더니즘은 무신론, 자연주의 및 진화론에 근거하므로 철저히 상대적이며 더 정확히 말한다면 문화적 상대주의(cultural relativism)라고 할 수 있다. 신의 존재를 부정하므로 윤리란 어떤 절대적인 규정에 따라 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필요 때문에 결정되는 것이다. 우리가 실재에 대해 알 수 있는 철학적 진리가 지역 공동체에 의해 결정되었듯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에 대한 도덕적 진리도 마

17) Richard Rorty, *Achieving Our Country: Leftist Thought In Twentieth-Century America*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98), 96.

18) Paul K. Feyerabend, “Anything Goes,” in Walter T. Anderson, ed. *The Truth About The Truth* (New York, NY: Tarcher/Putnam Publishers, 1995), 199-200.

19) Michael Polanyi, *Personal Knowledge: Towards a Post-Critical Philosophy*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4). Thomas S. Kuhn,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s* 3rd ed.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6).

찬가지라는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거대담론”이 더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각 공동체가 나름대로 필요를 채우기 위해 “작은 이야기들(little narratives)”을 발전시켜 나간다고 본다. 로티는 도덕에서 신의 위치를 부인하면서 신에 대해 호기심을 갖지 말고 각자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라고 말한다.²⁰ 사실 절대적인 윤리 기준을 부인한다면 ‘윤리’에 대해 말할 필요도 없어진다. 하지만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은 그런데도 윤리를 완전히 부인하지는 않으며 나름대로 각자의 담론에 따라 선악의 기준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진리가 개별 공동체의 산물이라면 윤리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공동체의 윤리 기준은 시대에 따라 변하고 진화한다고 본다. 가령 과거에는 낙태가 기독교의 영향으로 금기시되었으나 현대인들은 그렇지 않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신도, 절대적 도덕도 없으므로 우리는 미래에 생존하기 위해 가장 좋은 세상을 구성해 나가면 된다고 본다. 즉 진화의 개념이 윤리 속에 들어온 것이다. 따라서 모든 진리는 상대적이며 서구 문화는 엄격히 비판하되 다른 모든 문화는 동등하게 존중해야 하고 인종, 성 및 계급에 대한 차별 등은 보편적으로 악이지만 기타 모든 가치관은 주관적이라고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끝으로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은 역사적 사실들을 우리가 접근할 수 없다고 본다. 역사가들은 자신의 상상이나 이데올로기적 성향에 의해 과거에 일어난 일들을 재구성할 뿐이므로 역사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과정의 결과라기보다는 허구에 더 가깝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주관성을 강조하는 역사주의(historicism)를 주장하는데 이는 모든 역사적 문제들은 문화적 사회적 맥락 속에서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대표적인 포스트모더니스트들

대표적인 포스트모더니스트로 우선 프랑스의 장-프랑소와 리오타르(Jean-François Lyotard)를 들 수 있다. 그는 모더니즘에 대해 비판하면서 “포스트모던(postmodern)”이란 한마디로 거대담론(grand récit)에 대한 불

20) Rorty, *Achieving Our Country*, 16.

신이라고 말한다.²¹ 이 거대담론이란 역사의 진보 및 과학 기술에 의해 우리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는 믿음과 절대적인 자유의 가능성과 같은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세계관을 뜻한다. 그는 이러한 관점이 더는 적절하지 않고 가능하지도 않기에 이제는 신념 및 희망의 다름, 다양성과 차이를 예민하게 인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세계관은 우리가 과학, 예술 및 문학을 보는 관점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으며 사회적 변화 및 정치적 문제들을 설명하는 방식도 작은 담론들만이 적절하다고 강조한다. 리오타르는 이것이 포스트모던 과학의 추진 동력이라고 지적한다. 즉, 거대담론을 포기하면 과학은 이제 더는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며 연구를 정당화하는 다른 근거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그는 정보 기계가 더욱 지배한다고 지적하는데 지식과 정보를 구별하면서 지식이 유용해지려면 그것이 컴퓨터 데이터로 변환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1988년에 그는 『비인간: 시간에 대한 반성』(*L'INHUMAIN: Causeries sur le temps*)이라는 책을 출간했는데 여기서는 기술이 지배하는 세계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²²

둘째로 프랑스의 다른 사상가인 자크 데리다를 들 수 있다. 그는 원래 알제리에서 태어나 프랑스로 온 학자로 '해체(deconstruction)'라고 하는 독특한 언어 분석을 발전시켰다. 그는 서구 철학적 전통 나아가 서구 문화 전체의 가정들과 지배적인 이론들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수정을 가하면서 포스트모더니즘을 주창했다. 그는 서구 철학의 전통이 매우 임의적인 이원론에 기초해 있다고 주장한다. 즉 성/속(sacred/profane), 의미부여자/의미수용자(signifier/signified), 정신/육체(mind/body)가 그 예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래서 어떤 텍스트도 위계서열을 암시하며 그런 질서를 통해 상부계층이 하부계층을 억압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그는 이러한 이원론을 드러내는 작업이 바로 해체라고 주장한다.

세 번째로 프랑스의 미셸 푸코(Michel Foucault)가 있다. 그는 특히 권력과 지식의 관계를 분석하면서 이것이 어떻게 사회 기관들을 통해 통제의

21) Jean F. Lyotard, *La Condition postmoderne*, 1979.

22) Jean F. Lyotard, *L'INHUMAIN: Causeries sur le temps* (Paris: Galilée, 1988).

형태로 사용되는지 지적한다. 그의 기본 생각은 “진리란 권력에 의해 생산된다”는 것이다.²³ 각 사회는 나름대로 ‘진리관’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그 사회의 권력 관계를 전제로 가능하다고 본다. 따라서 우리가 진보라고 부르는 것은 지배와 통제의 다른 형태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보편적인 진리 또는 정의란 존재한다고 믿지 않는다. 또한, 단어 자체가 실재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한 가지 예로 벨기에의 초현실주의 화가 르네 마그리트(René Magritte, 1898-1967)가 그린 그림 “이미지의 배반”(La Trahison des images)을 설명한다. 이 그림은 마그리트가 파이프를 그리고 그 밑에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Ceci n'est pas une pipe)라고 적은 것인데(그림 3) 푸끄는 그의 에세이 “This Is Not a Pipe(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에서 이 그림에 있는 파이프는 실제 파이프가 아니라 그 파이프를 그린 것에 불과하므로 실제로는 파이프가 아니라는 말이 맞다는 것이다.²⁴ 이처럼 모든 인간은 그들의 문화와 언어라는 삶의 조건에 매여 있으므로 이것을 뚫고 나가 우주적이고 객관적인 사실과 진리에 도달할 수 없다고 그는 본다.



〈그림 3〉²⁵

23) Michel Foucault, *Histoire de la sexualité vol. 1. La volonté de savoir*, (Paris: Gallimard, 1976)

24) Michel Foucault, *This Is Not a Pipe*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3), 49.

25) upload.wikimedia.org/wikipedia/en/thumb/b/b9/MagrittePipe.jpg/300px-MagrittePipe.jpg

이외에도 프랑스의 장 보드리야르(Jean Baudrillard)같은 학자는 현실이 마치 디즈니월드(Disneyworld)같이 조작된 사회라는 의미로 하이퍼리얼리티(hyperreality)라고 주장했다.²⁶ 심지어 그는 1991년에 걸프(Gulf)전이 발발했을 때에도 이것은 실제 상황이 아니라 CNN(Cable News Network)이 조작한 시뮬레이션(simulation)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사람들이 죽어갔지만, 그는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글렌 워드(Glenn Ward)는 “보드리야르뿐만 아니라 포스트모더니즘이 진리를 버린 것에 대해 사람들의 신뢰를 잃게 만든 것”이라고 비평했다.²⁷ 이처럼 포스트모더니즘의 주요 사상가들이 주로 프랑스에서 나온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2차 대전 이후 장-폴 사르트르(Jean-Paul Sartre) 및 알베르 까뮈(Albert Camus) 등 무신론적 실존주의자들이 프랑스에서 주로 나타났는데 이 세계관이 좀 더 발전된 형태가 바로 포스트모더니즘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이 또한 프랑스에서 먼저 나왔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나중에 이 세계관은 미국 등 다른 곳으로 번져 나갔다.

마지막으로 언급할 학자는 미국의 리처드 로티이다. 로티는 포스트모더니즘을 철학적으로 변호하는 가장 잘 알려진 사상가로서 실재를 그 자체로 보여주는 “신적인 관점(divine perspective)”은 없다고 주장한다.²⁸ 왜냐하면, 각자는 자신의 주관적 조건에 따라 세계를 해석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로티는 진리를 누구나 아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그는 개인적인 신념에 대한 사회적 영향력을 강조한다. 진리란 다름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상호주관적 동의라고 본다. 따라서 그도 절대적이고 영원한 진리는 없으며 단지 공동체가 창조하는 것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 외에도 많은 학자가 이 세계관을 주장하면서 이와 관련된 책들을 출판하고 있다. 이처럼 유럽과 미국에서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포스트모

26) Jean Baudrillard, *Simulacres et Simulation*, (Paris: Galilée, 1981)

27) Ward, *Teach Yourself Postmodernism*, 77.

28) Richard Rorty, *Philosophy and the Mirror of Natur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9), *Philosophy and Social Hope* (New York: Penguin, 1999)

더니즘은 한국에도 들어와 있다. 건축물에서도 지금까지는 모더니즘적 건축물이 다수였으나 최근 포스트모던 건축물들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외국인들의 유입이 점점 더 많아지면서 다문화 가정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나아가 다원주의가 더욱 설득력을 얻으면서 성 소수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도 하나의 예라고 말할 수 있다.

3. 포스트모더니즘의 장점들

그렇다면 포스트모더니즘에는 어떤 매력적인 장점들이 있기에 그토록 많은 사람이 공감할까?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보겠다. 먼저 이 세계관은 모더니즘에서 볼 수 있는 인간의 헛된 욕심을 비판한다. 특히 권력욕 및 엘리트주의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다. 포스트모던 예술가 뱅크시(Banksy)의 작품을 보면 군인들이 완전무장을 하고 가스 마스크를 쓴 채 뛰어다니지만, 헬리콥터는 전쟁터에서도 예쁜 리본을 달고 있다. 이것은 양차 세계 대전을 일으킨 인간의 지배욕을 풍자한 것이다. (그림 4)



〈그림 4〉²⁹⁾

이것은 포스트모더니즘이 모더니즘을 비판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모더니즘이 인간의 이성을 절대 신뢰하고 그 결과 과학과 기술을 통해 세상을 올바르게 통제하면서 발전시킬 수 있다고 믿었지만 결국

29) images-na.ssl-images-amazon.com/images/I/51KIA81iOhL._AC_SX450_.jpg

두 번에 걸친 세계 대전을 통해 그러한 이상이 실패로 돌아갔음을 보면서 이제는 모더니즘적 환상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이다. 나아가 자본주의를 통해 경제적으로 풍요한 사회가 온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국제 금융 위기 등을 통해 이것도 인간의 과도한 욕심에 근거함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포스트모던 경제학자인 데이비드 루시오(David Ruccio)와 잭 아마리글리오(Jack Amariglio)는 자본주의가 남성 중심사회를 낳았고 빈부격차도 심해졌음을 비판하면서 더욱 평등한 사회를 외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매우 예리한 비판이라고 할 수 있겠다.³⁰

둘째로 포스트모더니즘은 지금까지 억압받던 사회의 다양한 소수자들에 대해 깊은 관심이 있다. 애니메이션 영화인 “슈렉(Shrek)”을 보면 이 점이 잘 나타난다. 이 영화에서 피오나(Fiona) 공주는 오전에는 매우 아름다운 모습이지만 저녁에는 괴물로 변한다. 하지만 슈렉과 피오나 공주가 서로 사랑하면서 그들은 매우 멋진 왕자와 아름다운 공주가 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들은 그 모습 그대로 매우 행복하게 살았다. 이것은 인간의 다양성과 개인의 존엄성을 강조하는 포스트모더니즘적인 세계관을 분명히 보여준다. 그 외에도 이러한 세계관을 보여주는 영화는 매우 다양하다. 이것은 포스트모더니즘이 거대담론을 거부하고 어떤 절대적 지식이나 가치 기준을 거부하는 것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한 사회의 주류 가치들은 결국 지배 계급의 조작에 불과하므로 다양한 소수 그룹은 큰 피해를 보았고 주장하면서 이제는 파편화, 부족화 및 카니발과 같은 다원주의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성 소수자에 대한 의견도 마찬가지이다. 심지어 루시오와 아마리글리오는 모든 성적 지향은 사회경제적으로 구조화된 것이며 “생물학적인 성과는 관계없이 인간은 다른 성적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³¹ 가령 지금까지는 남성과 여성만 존재했으나 이제는 다양성이 가능한데 가령 이성적(heterosexual), 동성애적(homosexual), 양성적(bi-sexual), 성전환(trans-sexual) 등이 가능하며 이 모든 것을 존중하고

30) David F. Ruccio, & Jack J. Amariglio, *Postmodern Moments in Modern Economic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3), 249, 269

31) Ruccio & Amariglio, *Postmodern Moments in Modern Economics*, 129, 169.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필자를 포함한 많은 사람은 이에 동의하지 않으나 이 세계관이 점점 더 많은 사람의 지지를 받는 것은 사실이다. 또한, 미국 사회는 지금까지 WASP (White Anglo-Saxon, Protestant) 그룹이 다른 인종들과 여성 그리고 기타 소수 그룹을 차별했다고 비판하면서 이 소수 그룹을 옹호하는 사회적 공평과 정의를 주장하는데 이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세 번째로 포스트모더니즘은 예술과 문화의 발전에 나름대로 이바지했다. 가령 앤디 와홀(Andy Warhol)의 유명한 팝 아트 작품 중 매릴린 먼로(Marilyn Monroe)와 (그림 5) 캠벨 습(Campbell Soup)을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진열한 것이 있다. (그림 6) 그는 창조를 “새로운 반복”이라고 하면서 작품들을 만들 때마다 자본주의적 소비문화 및 유명한 예술에 기초해 새로운 시도를 한다. 이 외에도 많은 다른 예술가들이 이러한 세계관에 기초하여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그림 5〉³²



〈그림 6〉³³

32) www.weinerelementary.org/uploads/2/2/8/6/22867982/4534855_3.jpg

33) assets.catawiki.nl/assets/2016/2/9/8/3/0/83063614-cf20-11e5-9eee-5c1bf1dc94cf.jpg

포스트모더니즘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건축에서도 새로운 시도를 하는데 전통적인 양식과는 달리 해체-지향적(Destruction-oriented)이며 불완전한 모습을 선호한다. 그 중 대표적인 것 중의 하나가 필립 존슨(Philip Johnson)이 디자인한 뉴욕(New York)의 AT&T 건물이다. 이 건물은 시간과 지역 문화를 함께 통합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절충주의(eclecticism)를 잘 보여준다. 이 건물 꼭대기의 치펜데일(Chippendale) 형태는 의자 및 책상과 같은 가구에 널리 사용되면서 사람들에게 향수를 불러일으킨다. (그림 7)



〈그림 7〉³⁴

다른 건물은 프랑크 게리(Frank Gehry)가 설계한 것으로 스페인(Spain) 북쪽의 도시 빌바오(Bilbao)에 있는 구겐하임 박물관(Guggenheim Museum)이다. 이 건물은 전통적인 근대주의 규범에서 벗어난 파괴 및 불완전의 사상을 의미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의 해체를 잘 보여준다. 게리는 이 건물을 초현실주의적인 가상공간으로 만들면서 매우 독특한 형태를 창조하여 못생긴 것과 아름다움을 동시에 보여준다. (그림 8) 그 외에도 여러 건축가가 이러한 시도를 하고 있다.

34) cdn.archpaper.com/wp-content/uploads/2018/06/550Madison_AFradkin_6321b-5.jpg



〈그림 8〉³⁵⁾

마지막으로 포스트모더니즘은 인간의 한계를 깊이 인정한다고 말할 수 있다. 지금까지 모더니즘이 인간에 대해 지나치게 낙관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이성을 과신하고 과학 기술을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보면서 인간의 힘으로 이 땅에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20세기 후반에 들어오면서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은 인간의 한계를 자각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출판된 많은 책의 제목이 '종말'로 끝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가령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Martin Heidegger)는 1973년에 이미 철학의 종말을 다룬 *The End of Philosophy*라는 책을 저술했다.³⁶⁾ 1992년에 프랜시스 후쿠야마(Francis Fukuyama)라는 일본계 미국인 정치학자는 *The End of History and the Last Man*이라는 책을 썼다.³⁷⁾ 이 책에서 그는 자유 민주주의가 인간이 진화해 온 정치 제도의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아가 1996년에 닐 포스트만(Neil Postman)은 *The End of Education: Redefining the Value of School*이라는 책도 출판했으며³⁸⁾ 미국의 저널리스트인 존 호르간(John Horgan)은 *The End of Science: Facing The Limits Of Knowledge In The Twilight Of The Scientific Age*라

35) 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d/de/Guggenheim-bilbao-jan05.jpg

36) Martin Heidegger, *The End of Philosophy* (New York, NY: Harper & Row, 1973).

37) Francis Fukuyama, *The End of History and the Last Man* (New York, NY: Free Press, 1992).

38) Neil Postman, *The End of Education: Redefining the Value of School Reprint Edition* (New York, NY: Vintage, 1996).

는 책을 써서 자연 과학과 인간의 지식도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고 주장했다.³⁹ 다음 해인 1997년에 미국의 환경주의자 빌 맥키번(Bill McKibben)은 *The End of Nature*라는 책을 출판했는데⁴⁰ 이 책은 기후 변화에 대해 가장 먼저 경고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2000년에 들어와 다니엘 벨(Daniel Bell)은 *The End of Ideology: On the Exhaustion of Political Ideas in the Fifties, with "The Resumption of History in the New Century"*라는 책을 냈다.⁴¹ 원래 이 책은 1960년에 나왔지만 2000년에 수정판이 나온 것인데 이 책에서 벨은 19세기 및 20세기 초반에 나타난 인본주의적 이념은 종말에 이르렀고 앞으로는 국지적 이념들만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2005년에는 샘 해리스(Sam Harris)라는 미국의 철학자가 *The End of Faith: religion, terror and the future of reason*이라는 책을 출판했다.⁴² 이 책에서 그는 전통적인 기독교와 이슬람을 비판하면서 신앙의 시대는 끝이 났고 이성을 더 강조한다. 이처럼 많은 책이 '종말'을 말하는 것은 기존의 세계관들이 한계에 봉착했음을 보여준다. 포스트모더니즘은 이 모더니즘의 고백을 받아들이고 인류 문명의 종말에 대한 진단과 위기의식에 공감하며 인간이 더 겸손하고 신중할 것을 말한다. 이러한 장점들에 대해서는 기독교 세계관도 어느 정도 수용하고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4. 포스트모더니즘의 단점들

그렇다면 포스트모더니즘의 단점들은 무엇인가? 첫째로 이 세계관이 매우 모호하다는 것이다. 미국의 언어학자 노암 촘스키(Noram Chomsky)

39) John Horgan, *The End of Science: Facing The Limits Of Knowledge In The Twilight Of The Scientific Age* (New York, NY: Basic Books, 1996).

40) Bill McKibben, *The End of Nature* (New York, NY: Random House, 1989).

41) Daniel Bell, *The End of Ideology: On the Exhaustion of Political Ideas in the Fifties, with "The Resumption of History in the New Centur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2000).

42) Sam Harris, *The End of Faith: religion, terror and the future of reason* (New York, NY: W. W. Norton, 2005).

는 포스트모더니즘은 분석과 경험에 기초한 실증적 지식에 이바지하는 것이 없기에 무의미한 학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포스트모더니스트들에게 이론의 원리가 무엇이고 기반을 두고 있는 증거가 무엇이며 그것이 명백한지 설명해 보라고 도전한다.⁴³ 작가인 크리스토퍼 히친스(Christopher Hitchens)도 사상을 단순 명료하고 직접 표현해야 하는데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의 표현은 매우 모호하다고 지적한다.⁴⁴ 이에 대해 포스트모던 사상가들은 이 세계관 자체가 이미 비본질주의적이고 반기초주의적이므로 용어들이 모호할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이런 논지는 자기모순이다. 왜냐하면, 이들이 모더니즘에는 분명한 의미가 없다고 먼저 강하게 비판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거대담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주장 자체는 결국 또 다른 거대담론이 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이 포스트모더니즘은 반세계관적 세계관(anti-worldview worldview)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로 포스트모더니즘은 도덕적 상대주의에 빠진다. 촘스키는 포스트모던 사회란 도덕적 상대주의와 같은 뜻이며, 일탈 행동을 조장한다고 주장하며 찰스 콜슨(Charles Colson)은 포스트모던 시대란 이념적으로 불가지론적이며 상황 윤리로 특징 지워진다고 비판했다.⁴⁵ 그렇게 되면 어떤 도덕적 판단도 불가능해진다. 조쉬 맥도웰(Josh McDowell)과 밥 호스테틀러(Bob Hostetler)도 포스트모더니즘을 “어떤 객관적 감각으로도 진실이 존재하지 않으며, 그것이 밝혀지기보다 만들어진다는 믿음으로 특징지어지는 세계관”으로 정의하면서 이런 관점에서 진실이란 특정 문화에서 만들어지며 어떤 시스템은 모두 권력으로 다른 문화를 지배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하게 된다고 비판한다.⁴⁶ 즉 모든 것을 권력 구조로 환원하는 것은

43) bactra.org/chomsky-on-postmodernism.html

44) Christopher Hitchens, *Why Orwell matters* (New York: Basic Books, 2002).

45) Stanley S. Seidner, “A Trojan Horse: Logotherapeutic Transcendence and its Secular Implications for Theology.” Paper presented at the ‘A Secular Age: Tracing the Contours of Religion and Belief.’ Mater Dei Institute of Education, 2009, 3.

46) Josh McDowell & Bob Hostetler, *The New Tolerance* (Carol Stream IL: Tyndale House, 1998), 208.

오류라는 것이다. 문학에서도 어떤 텍스트를 읽을 때 그 의미는 전적으로 독자에 의해 결정된다. 저자가 아무리 이러한 의도로 글을 적었지만 독자가 그 반대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저자가 원하는 한 가지 의미에서 해방되어 독자는 자유롭게 새로운 의미들을 창조할 수 있기에 자칫 작품의 의도는 저자가 전혀 원하지 않는 나쁜 방향으로 왜곡될 수 있으며 그것 자체가 정당화될 수 있다. 이 세계관은 절대적 상대주의라는 자기 모순적 주장을 하므로 어떤 가치 판단도 불가능하게 되어 도덕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며 사회의 혼란을 일으킬 것이다. 가령 마더 테레사(Mother Teresa)와 아돌프 히틀러(Adolph Hitler)를 더는 선과 악의 예로 사용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나아가 아무리 작은 담론만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한 사회가 존속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모두가 동의하는 기본 계약이나 법적 질서가 필요하다. 가령 인간의 기본적인 가치나 인권, 자유나 평등과 같은 보편적 기준은 포기할 수 없을 것이다.

셋째로 포스트모더니즘은 진리의 객관성을 버렸다. 이 세계관은 기본적인 영적 또는 자연적 진리들을 거부하며 내적 균형과 영성은 무시하니 결국 물질적 쾌락만 강조할 것이다. 진리의 거대담론을 거부할 경우 지금 여기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아무렇게나 해도 문제없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결국 인간은 자기 개인의 욕심대로 살아갈 것이고 따라서 인간사회는 약육강식 및 적자생존의 비정한 정글로 변할 것이며 이것은 소수자를 배려하는 원래의 취지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영국의 사회주의자 알렉스 캘리니코스(Alex Callinicos)는 포스트모더니즘이 68혁명에 실망한 당시 혁명가 세대의 생각이 반영되었으며 전문직·경영직 중산층에 흡수된 왕년의 혁명가들이 뒤섞여 있는 사상이라고 분석하면서 이 세계관을 정치적 좌절과 사회 이동에 따른 특정 징후로 이해해야지 그 자체로 가치 있는 중요한 지적·문화적 현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한다.⁴⁷ 이와 마찬가지로 미술사학자 존 몰리뉴(John Molyneux)도

47) Alex Callinicos, *Against Postmodernism: A Marxist Critique* (Cambridge: Polity Press, 1991).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은 부르주아 역사학자들이 읊조린 갖가지 설득의 노래만 따라 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⁴⁸ 미국의 문학평론가이자 마르크스주의 정치이론가인 프레드릭 제임슨(Fredric Jameson)은 포스트모더니즘이 자본화와 세계화 문제의 거대담론과 엮이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를 “후기 자본주의의 문화 논리”라고 비판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포스트모더니즘은 지배와 착취의 관계가 팽배한 사회의 공모자로 전락한다고 그는 본다.⁴⁹ 슬로베니아의 비판이론가 슬라보예 지젝(Slavoj Žižek)은 포스트모더니즘의 해체주의가 주체성도 해체함으로써 주체마저 사라져 사회적 저항의 구심점이 사라졌다고 비판했다.⁵⁰ 뉴욕대학교 물리학과 교수인 앨런 소칼(Alan Sokal)은 포스트모더니즘은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정치적인 면에서 ‘신좌파’지만 사상누각 같으며 중도나 우파 세력에 의해 공격받을 것이고 나아가 지적 해체주의 따위가 어떻게 노동계급을 해방할 수 있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⁵¹

넷째로 포스트모더니즘은 과학의 존재 자체도 위협한다고 볼 수 있다. 객관적 진실을 추구하며, 자신의 이론에 책임을 져야 하는 과학자들은 모든 것이 상대적이고 실재가 없으며 아무것도 알 수 없다고 주장하는 포스트모더니즘에서 아무런 유의한 점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사실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은 과학에 대해 무지했을 뿐 아니라 파괴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들은 과학적 진리를 일종의 잠정적인 것으로 보고 과학은 여러 앞의 방식 중 하나에 불과하며 구미 백인 남성들의 전유물이라고 여겼다. 나아가 그들은 과학 용어를 잘못된 의미로 사용하며 자신들의 이론을 정당화하기도 했다. 그러자 많은 과학자가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의 과학 지식 오용과 그 사상의 막연성, 몽매주의에 대해 비판하기 시작했다. 리차드 도킨

48) John Molyneux, “Is Marxism deterministic?” *International Socialism Journal*, Issue 68, 1995.

49) Fredric Jameson, *Postmodernism, or, the Cultural Logic of Late Capitalism* (Durham, NC: Duke Univ. Press, 1991).

50) 김현강, 『슬라보예 지젝』 (서울: 이룸, 2009).

51) Alan Sokal & Jean Bricmont, *Impostures intellectuelles* (Paris: Odile Jacob, 1997).

스(Richard Dawkins)는 과학 저널 *Nature*에 게재된 "Postmodernism disrobed(포스트모더니즘 벗기기)"라는 논문에서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이 상대성 이론과 상대주의를 혼동한 것, 괴델의 불완전성 정리와 양자론, 혼돈 이론 등을 오남용한 것, 나아가 과학 용어와 사이비 과학을 혼재하면서 이해할 수 없게 문장을 어렵게 쓰는 몽매주의적 태도와 맥락 없는 용어의 남용 등을 비판했다.⁵² 특히 데리다가 말한 해체주의의 경우 무한 소급의 문제에 빠진다고 말할 수 있다. 만일 포스트모더니즘의 전제가 옳다면,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이 저술한 책을 읽는 독자는 그 결론이 그가 의도한 결론인지 아닌지 확신할 수 없다. 반대로 만일 독자가 파악한 것이 그 철학자의 의도와 같다면 그 논증을 받아들여야 할지 말아야 할지도 불분명해지는 애매한 딜레마에 빠지는 것이다. '해체'를 강조하더라도 다시 무엇인가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해체만 하고 끝나면 결국 삶은 무의미하고 새로운 발전도 불가능해진다. 따라서 포스트모더니즘은 다시 허무주의로 빠진다고 볼 수 있다. 심지어 세속적인 인본주의자인 폴 쿠어츠(Paul Kurtz)도 과학은 합리적이며 객관적인 진리 판단의 기준을 제시하며 모든 사람에게 문화적 배경에 상관없이 보편적 언어가 되었기에 과학의 객관성을 거부하는 것은 오류이며 따라서 포스트모더니즘은 비생산적이고 결국 허무주의적이라고 지적한다.⁵³

5. 포스트모더니즘의 단점들에 대한 기독교 세계관적 대안

그렇다면 이 포스트모더니즘이 가진 약점들에 대해 기독교 세계관은 어떤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까? 먼저 이 세계관이 가진 모호성에 대해 최소한의 절대적 기준이 필요하다. 지역적이고 시대적 상황을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이를 근거로 완전한 상대주의만 주장한다면 사회는 더 큰 혼란에 빠질 것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이 개방성과 관용을 강조하는 것은 긍정적인

52) Richard Dawkins, "Postmodernism disrobed" *Nature*, 1998, 141-143.

53) Paul Kurtz, *Humanist Manifesto 2000: A Call for A New Planetary Humanism* (Amherst, NY: Prometheus Books, 2000).

지만, 이것이 극단적 상대주의를 낳게 되면 인간의 존재 자체가 위협을 받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성경적 세계관은 절대적 진리와 기준을 제시한다. 창조는 모든 시공간을 포함하는 우주적인 창조주의 행동이며 그 결과 피조물이 그분이 제정한 법칙에 따라 존재한다. 타락 또한 우주적인 현상으로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계에 그 영향을 미치며 이를 회복한 구속도 마찬가지다. 나아가 완성이란 새 하늘과 새 땅을 통해 만물이 새롭게 되는 것으로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전능하신 주권자를 제시한다.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성경이라는 구체적인 언어와 자연에 나타난 일반 계시를 통해 자신의 진리를 인간에게 알리기 원하셨고 따라서 우리는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 분명한 진리를 알 수 있다.

둘째로 도덕적 상대주의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인간의 이성과 윤리관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모더니즘은 이성을 과대평가하여 낙관적인 태도를 보이다가 20세기에 양차 대전을 겪으면서 이것이 틀렸음을 철저히 경험하였다. 하지만 포스트모더니즘은 이성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하여 비합리주의적이고 도덕적 상대주의로 빠지고 말았다. 따라서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절대적 윤리를 포기하면 타락한 인간은 더 큰 죄를 지을 가능성이 커지며 사회는 더욱 타락할 것이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도덕적 계명을 떠나면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지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기독교 세계관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라는 낙관적인 관점과 동시에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라는 비관적인 입장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나아가 십계명이라는 분명한 도덕적 기준을 보여준다.

셋째로 진리의 객관성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진리의 객관성이 무너지면 우리는 어떤 학문도 할 수 없을 것이다. 학문적 진리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진리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 모든 거대담론을 해체하고 파편만 남는다면 우리의 삶의 기준이 사라져 버릴 것이며 그러면 인간사회는 무정부 상태로 빠지는 비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성경적 세계관은 분명하고 객관적인 진리를 제시한다. 그분의 모든 말씀은

진리임을 성경은 분명히 선포한다(시 119:160). 그분이 길이기에 삶에 방향이 있고 그분이 진리이기에 올바른 지식을 가질 수 있으며 그분이 생명이기에 온전한 삶이 가능하다(요 14:6).

마지막으로 기독교 세계관은 과학을 포기하기는커녕 더욱 발전시킨다. 과학의 절대성을 맹신하는 과학주의(scientism)에 빠져서도 안 되지만 모든 학문적 진리를 부정하는 것 또한 반대의 극단이므로 양자 간에 균형을 이루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제임스 모어랜드(James P. Moreland)가 말한 바와 같이 과학이란 우주가 이해할만하며 자의적이지 않고, 인간의 지성과 감각은 우리에게 실재에 관해 정보를 제공하며, 수학과 언어도 세상에 적용될 수 있고 따라서 자연에 일치성이 있으며 지식이 가능하고 과거로부터 미래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⁵⁴ 기독교 세계관은 소위 문화 명령을 통해 근대과학의 발전에 큰 공헌을 했다. 로드니 스타크(Rodney Stark)는 이슬람이나 뉴에이지 또는 다른 어떤 무신론적 인본주의보다 기독교 세계관이 얼마나 근대과학에 크게 이바지했는지를 그의 책을 통해 잘 보여준다.⁵⁵ 네덜란드의 과학철학자였던 레이어 호이까스(Reijer Hooykaas, 1906-1994) 또한 같은 논지를 설득력 있게 전개했다.⁵⁶

III. 결론

현대의 가장 중요한 시대정신(Zeitgeist)은 포스트모더니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 세계관은 세계적으로 그리고 우리 생활의 다양한 면에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 포스트모더니즘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으며 그 기본적인 내용과 주된 주창자들을 살펴

54) James P. Moreland, *Christianity and the Nature of Science: A Philosophical Investigation* (Grand Rapids, MI: Baker Book House, 1989) 45.

55) Rodney Stark, *For the Glory of God*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3).

56) Reijer Hooykaas, *Religion and the Rise of Modern Science* (Edinburgh: Scottish Academic Press, 1977). 손봉호, 김영식 공역, 『근대과학의 출현과 종교』 (서울: 정음사, 1987).

본 후 이 세계관의 장단점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해 보았고 단점들에 대한 대안들을 기독교 세계관으로 제시해 보았다.

포스트모더니즘은 인간의 이성을 통한 과학과 이 과학을 응용한 기술 그리고 자본주의라는 경제적 발전이 나온 모더니즘의 환상이 1, 2차 세계 대전, 홀로코스트, 원자 폭탄 투하 및 세계 경제 대공황 등을 거치면서 산산이 깨어진 후 나타난 인본주의의 마지막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다. 아마도 포스트-포스트모더니즘이 나타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은 진정으로 참된 최고의 실재에 대해 무신론을 주장한다. 실재란 인간의 탐구로 궁극적으로 접근할 수 없고 지식이란 하나의 사회적 구성물로 진리에 관한 주장은 정치적 권력 놀음에 지나지 않고 단어들의 의미도 저자들이 아니라 독자들에게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 인간에 대해서도 합리성보다는 비합리성과 감정에 더 초점을 맞춘다. 인간이 지식을 가질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도 매우 비판적이어서 가령 과학에서도 우연과 비연속성을 더 강조한다. 윤리 또한 철저히 상대적이며 더 나아가 문화적 상대주의라고 할 수 있다. 역사적 사실들도 우리가 접근할 수 없고 역사가들은 자신의 상상이나 이데올로기적 성향에 의해 과거에 일어난 일들을 재구성할 뿐이므로 역사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과정의 결과라기보다는 허구에 더 가깝다고 주장한다.

이 세계관은 먼저 프랑스의 리오타르, 데리다, 푸코 및 보드리야르에 의해 발전되었고 미국으로 건너가 로티 등이 주장했다. 이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해 현대인들에게 그렇게 매력을 느끼는 이유는 인간의 헛된 욕심들을 예리하게 비판하고, 지금까지 억압받던 사회의 다양한 소수자들에 대해 깊은 관심이 있으며, 예술과 문화의 발전에 나름대로 이바지했고, 인간의 한계를 깊이 인정하는 등 여러 가지 긍정적인 요소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세계관은 깊이 분석할수록 매우 모호하며, 결국 도덕적인 상대주의에 빠지고 나아가 진리의 객관성을 버렸다고 할 수 있으며 과학의 존재도 위협하는 부정적인 측면들도 있음을 살펴보았다. 다시 말

해 ‘모든 것은 상대적’이라고 보면서 이러한 주장 자체는 절대적인 자기모순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렇기에 기독교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 학자들도 이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해 다양한 비판을 가하는 것을 보았다.

이 세계관에 대해 기독교자들이 특히 경계해야 할 이유는 외면적으로 볼 때 많은 사람이 공감할 만한 논리를 가지고 미혹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세상의 종말에 나타날 하나의 현상이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다(마 24:4, 막 13:5, 고전 6:9). 따라서 기독교 세계관은 이에 대해 분명한 관점을 제시하며, 도덕적으로도 객관적인 기준을 보여주고 나아가 진리의 객관성을 강조하며 과학도 발전시킴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포스트모더니즘이 제기하는 각종 이슈에 대해서도 기독교자들은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성경적 세계관으로 적절한 대안들을 제시하며 이 영적인 전쟁에서 더욱 경각심을 잃지 않고 치열하고 올바르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고후 10:5, 벰전 3:15).

참고문헌

- 김현수 역. (2007). 『기독교와 현대사상』, Sire, J. W. (2009). *The Universe Next Door: A Basic World View Catalog*. 서울: IVP.
- 김현강, (2009). 『슬라보예 지적』 서울: 이룸.
- 류현진, 류현모 역. (2013). 『충돌하는 세계관』, Myers, J. & Noebel, D. A. (2015). *Understanding the Times: A Survey of Competing Worldviews*. 서울: 꿈을 이루는 사람들(DCTY).
- 손봉호, 김영식 공역. (1987). 『근대과학의 출현과 종교』, Hooykaas, R. (2000). *Religion and the Rise of Modern Science*. 서울: 정음사.
- 신국원 (1999). 『포스트모더니즘』 서울: IVP.
- 전광식 (1994).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기독교 세계관적 비판”, 『통합연구』, 제7권 2호(통권 22호), 1994년 6월, 21-29.
- Anderson, W. T. (1990). *Reality Isn't What It Used to Be: Theatrical Politics, Ready-to-Wear Religion, Global Myths, Primitive Chic, and Other Wonders of the Postmodern World*. San Francisco, CA: Harper & Row.
- Barna, G. (1994). *Virtual America*, Ventura, CA: Regal.
- Baudrillard, J. (1981). *Simulacres et Simulation*, Paris: Galilée.
- Bell, D. (2000). *The End of Ideology: On the Exhaustion of Political Ideas in the Fifties, with "The Resumption of History in the New Centur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Callinicos, A. (1991). *Against Postmodernism: A Marxist Critique*. Cambridge UK: Polity Press.
- Carson, D.A. (1993). “Christian Witness in an Age of Pluralism,” in D.A. Carson and John Woodbridge, eds., *God and Culture: Essays*

- in Honor of Carl F.H. Henry*. Grand Rapids, MI: Eerdmans.
- Dawkins, R. (1998). "Postmodernism disrobed" *Nature*, 141-143.
- Derrida, J. (1972). *La Dissémination*, Paris: Seuil.
- Feyerabend, P. (1995). "Anything Goes," in Walter Truett Anderson, ed., *The Truth About The Truth*. New York, NY: Tarcher/Putnam Publishers, 199-200.
- Foucault, M. (1976) *Histoire de la sexualité* Vol. 1. La volonté de savoir, Paris: Gallimard.
- _____. (1983). *This Is Not a Pipe*.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Fukuyama, F. (1992). *The End of History and the Last Man*. New York, NY: Free Press.
- Harris, S. (2005). *The End of Faith: religion, terror and the future of reason*. New York, NY: W.W. Norton & Company.
- Heidegger, M. (1973). *The End of Philosophy*. New York, NY: Harper & Row.
- Hitchens, C. (2002). *Why Orwell matters*, New York, NY: Basic Books.
- Horgan, J. (1996) *The End of Science: Facing The Limits Of Knowledge In The Twilight Of The Scientific Age*, New York, NY: Basic Books.
- Jameson, F. (1991). *Postmodernism, or, the Cultural Logic of Late Capitalism*, Durham, NC: Duke University Press.
- Kuhn, T. S. (1996).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s*. 3rd ed.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Kurtz, P. (2000). *Humanist Manifesto 2000: A Call for A New Planetary Humanism*. Amherst, NY: Prometheus Books.
- Lyotard, J.-F. (1979). *La Condition postmoderne: Rapport sur le savoir, Collection Critique. The Postmodern Condition: A Report*

- on Knowledge*. Minneapolis, M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84. 유정완 역, 『포스트모던의 조건: 지식의 보고서』 서울: 민음사, 2018.
- _____. (1988). *L'INHUMAIN. : Causeries sur le temps*. Editions Galilée.
- McDowell, J. & Hostetler, B. (1998). *The New Tolerance*, Carol Stream IL: Tyndale House.
- McKibben, B. (1989). *The End of Nature*. New York, NY: Random House.
- Molyneux, J. (1995). "Is Marxism deterministic?" *International Socialism Journal*, Issue 68.
- Moreland, J. P. (1989). *Christianity and the Nature of Science: A Philosophical Investigation*. Grand Rapids, MI: Baker Book House.
- Myers, J. & Noebel, D. A. (2015). *Understanding the Times: A Survey of Competing Worldviews* Colorado Springs, CO: David C Cook.
- Polanyi, M. (1974). *Personal Knowledge: Towards a Post-Critical Philosophy*.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Postman, N. (1996). *The End of Education: Redefining the Value of School Reprint Edition*. New York, NY: Vintage.
- Rorty, R. (1979). *Philosophy and the Mirror of Natur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_____. (1998). *Achieving Our Country: Leftist Thought In Twentieth-Century America*.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_____. (1999). *Philosophy and Social Hope* (New York: Penguin)
- Rorty, R. & Vattimo, G. (2005). *The Future of Religion*. New York, NY: Columbia Univ. Press.
- Ruccio, D. F. & Amariglio, J. (2003). *Postmodern Moments in Modern Economic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eidner, S. S. (2009). "A Trojan Horse: Logotherapeutic Transcendence and its Secular Implications for Theology". Paper presented at the 'A Secular Age: Tracing the Contours of Religion and Belief.' Mater Dei Institute of Education.
- Sokal, A. & Bricmont, J. (1997). *Impostures intellectuelles*. Paris: Odile Jacob.
- Stark, R. (2003). *For the Glory of God*.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Vanhoozer, K. J. ed. (2005). *Postmodern Theology*. Cambridge, UK: Cambridge Univ. Press.
- Ward, G. (2003). *Teach Yourself Postmodernism*. Chicago, IL: McGraw-Hill.

bactra.org/chomsky-on-postmodernism.html

<http://www.onpostmodernism.com>

<http://www.allaboutworldview.org>

〈Abstract〉

A Research on Postmodernism from the Christian Worldview

Yong Joon (John) Choi(Han Dong Global University)

This article is a research on postmodernism from the Christian worldview. Postmodernism has appeared as the alternative of modernism which has lost its credibility. In order to replace modernism, postmodernism came without losing the basic human centered ideal. It includes various expressions in culture, arts, philosophy, history, economics, architecture and literature, etc. By eliminating religious root and transcendent character, it also emphasizes more fragmented, subjective morality instead of consistent, objective one. Postmodernists have a special concern for the alienated and disregarded people who are poor and oppressed. Nevertheless, this worldview has many problems. This article, therefore, takes a careful look at the background and the contents of this worldview and then mentions some representative thinkers. After that, not only its strong aspects but also its weak and self-contradictory points will be critically investigated. In conclusion, an attempt is made to offer alternatives to the weak points from the Christian worldview.

Key Words: postmodernism, meta-narrative, deconstruction, relativism,
Christian worldview

논문투고일: 2022. 02.26.

논문심사일: 2022. 03.25.

게재확정일: 2022. 04.25.